

전남도, 글로벌 해상풍력 터빈사 유치 막바지 총력전

덴마크 베스타스·독일 지멘스·미국 제너럴일렉트릭 터빈공장 설립 투자기업 인센티브 확대·지역 기업 제품 우선 구매·추가 부지 확보 등

전남도가 덴마크 베스타스, 독일 지멘스, 미국 제너럴일렉트릭 등 글로벌 터빈 3사의 터빈공장 유치를 위한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투자기업 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과 지역 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 마련, 해상풍력 연관 기업 유치를 위한 추가 부지 확보 등 기업 활동 최적 여건 조성에 나서고 있다. 베스타스는 지난해 전남도와 해상풍력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

약을 했다. 지멘스 아시아-태평양 최고경영자(CEO)와 제너럴일렉트릭 코리아 대표도 전남도를 방문해 사업 협력을 논의하는 등 글로벌 터빈 3사 모두 전남도를 유력한 터빈공장 설립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글로벌 터빈사 등 해상풍력 연관기업 유치를 위해 올 초 '전남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했다. 조례 개정으로 외국인 투자비용이 100분의 30 이상인 기업에 지원하던 보조금을 100분의 10 이상으로 완화했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개발한 국가항 배후단지내 해상풍력 연관기업이 입주하면 최대 50억원의 임차료 지원도 가능해졌다. 또 전남도는 도내에서 생산된 해상풍력 터빈을 지역 발전사에서 우선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월 초 '도내 생산·조립 해상풍력 터빈에 대한 우대방안 연구용역'을 착수하고 국내 터빈 선정 입찰사례 분석을 통해 도내 생산·조립 터빈에 대한 가점 부여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지역 해상풍력 발전사도 도내 생산·조립 터빈 우선 사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용역 결과를 반영해 발전사와 도내 투자기업 제품 우선 사용을 위한 상생협약을 하고 전남에 투자하는 터빈사의 터빈물량 확보를 간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전남에 터빈공장을 설립하는 기업은 도와 지역 발전사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국내 해상풍력 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며 "베스타스 등 글로벌 터빈 3사 모두 터빈공장 설립 후보지 검토

단계인 만큼 확대된 해상풍력 투자기업 인센티브 제도와 지역 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 마련 계획 등을 적극 설명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협의를 통해 글로벌 터빈 3사 중 일자리 창출 효과가 더 큰 기업을 우선 유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터빈뿐만 아니라 타워, 허브구조, 케이블 등 해상풍력 연관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해상풍력 연관기업 유치를 위한 추가 부지 확보를 위해 목표산향 지원부두 예비타당성조사 신청과 해남 화원산단 해상풍력 전용항만 및 배후단지 개발도 서두르고 있다. /유현석 기자 chadol@

“쇼핑몰 추진 유통 대기업, 투자자로 봐야”

강기정 시장, 간부회의서 “유통 인구 늘고 지역 경제에 활력” 강조

강기정 광주시장은 2일 “복합쇼핑몰 건립을 추진하는 유통 대기업을 투자자로 보는 관점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인공지능·금형 기업, 삼성전자, 구글, 창업기업 등을 투자자로 보듯이 유통 대기업들도 투자자로 봐야 한다”며 “복합쇼핑몰이 들어서면 유통 인구가 늘고 경제적 파급효과도 발생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복합쇼핑몰 유치를 광주 공유 이익을 극대화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익을 확장해 공동체, 모든 경제주체, 시민, 소상공인과 나누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생각의 결이 다르거나 오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 더 많이 토론하고

깊이를 더해달라”고 당부했다. 강 시장은 지난 30일 열린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에서도 상생보다는 이익 공유 관점을 강조해 협의체 구성 등 상생 방안 논의를 요구하는 소상공인 단체 등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강 시장은 이와 관련해 “인식의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게 됐다. 특히 시와 시민사회단체 간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면서 “소통 창구와 의지가 부족하다는 시민사회단체 지적에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관합치위원회와 각종 태스크포스(TF)를 내실화하자고 제안했다. 위원회나 TF가 형식적인 부분도 없지 않았다고 고백한다.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비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미취업 청년, 일 경력 쌓으세요”

광주시 ‘일경험드림플러스’ 470명 모집...공공기관 등 5개월 근무

광주시는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 사업을 통해 상반기 5개월간 일경험에 참여할 제13기 드림청년 470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는 광주 청년에게 직무적성에 맞는 일경험과 직무역량 강화교육, 연계 활동 등을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이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 동안 5000여 명의 청년이 참여해 지역 내 다양한 사업장에서 직무역량을 쌓았다. 올해는 상반기 470명(공공기관형·기업형 각 120명, 사회복지형·사회적가치형 각 80명, 청년창업기업형 70명), 하반기 340명, 직무심화트랙(10개월 참여·상반기 참여자 중 별도 선발해 하반기까지 진행) 110명 등 5개월 사업 참여를 기준으로 총 920명을 지원한다. 상반기 모집 대상은 광주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만19~39세(1983년 3월 2일생부터 2004년 3월 1일생까지) 미취업 청년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6일 오전 10시부터 16일 오전 9시까지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페이지를

통해 사전 접수하면 된다. 홈페이지 사전 접수자는 14일부터 16일까지 시청 1층 시민홀에서 진행되는 ‘드림만남의 날’에 참여해 드림터 상담과 유형별 면접을 거쳐 16일까지 최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발 결과는 23일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와 광주청년정책플랫폼,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이다. 선발된 드림청년은 3월부터 7월까지 공공기관형, 기업형, 사회복지형, 사회적가치형, 청년창업기업형 등 5개 유형별 사업장에서 주 25시간씩 5개월간 일경험을 진행한다. 일경험 근무에 따른 급여는 광주시 생활임금 수준으로 지급한다. 신청 및 참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 궁금한 점은 카카오톡 채널 ‘광주청년드림’ (http://pf.kakao.com/_Sxkxhqxl)과 광주청년일경험드림플러스 통합지원기관(010-2012-1934)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영록 전남지사와 삼성전자대회협력담당 박승희 사장, 김병준 사회복지공공모금회 회장,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 등이 2일 순천시 금곡길 순천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희망디딤돌 전남센터 개소식에서 개소를 축하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 자립청년 돕는 ‘희망디딤돌 센터’ 개소

삼성전자, 3년 운영비 50억 후원...순천·목포서 운영

2일 순천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전남지역 자립 준비 청년의 안정적 사회 진출과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디딤돌 전남센터’가 문을 열었다. 개소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박승희 삼성전자 대외협력 사장, 김병준 사회복지공공모금회 회장,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 김미자 전남아동복지협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희망디딤돌 전남센터’는 ㈜삼성전자에서 2022년부터 3년간 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50억 원을 사회복지공공모금회를 통해 기부하고, 전남 아동복지협회에서 위탁받아 운영한다. 전남도는 2025년 기부채납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받게 된다. 전남센터는 이날 개소한 순천과 현재 개소 준비 중인 목포에 설치된다. 각각 5층 건물을 매입, 리모델링해 자립준비청년이 거주할 수 있는 ‘생활관’과 보호아동이 자립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체

험실’을 갖추고, 아이들이 완전하게 자립하도록 교육과 상담도 지원한다. 김영록 지사는 “많은 자립 준비 청년이 주거 불안, 경제적 문제 등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데, 전남지역 보호아동의 자립을 위해 통 큰 후원을 한 삼성전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전남도는 희망디딤돌 전남센터가 아이들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이자, 사회를 향해 한 발 한 발 안전하게 내딛는 징검돌 역할을 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022년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해 자립실대 및 욕구조사를 실시했다. 앞으로 보호 종료 후 건강안 사회인사로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적·주거 안전망 확충, 사회적 지지체계와 사회활동 확대, 맞춤형 능력 개발과 취업 지원 등 자립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생활체육지도자

광역시자체 첫 호봉제

광주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를 시행한다. 시민 건강을 책임지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이 기대된다. 광주시는 2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 시행 서명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강기정 시장과 자치구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대표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광역자치체 최초로 호봉제 도입에 합의하면서 이뤄졌다. 광주지역 생활체육지도자는 총 83명으로, 이들은 각 자치구에 배치돼 복지시설과 학교 등에서 시민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을 지도하고 있다. 2021년 10월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나, 단일임금제 탓에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등 불합리한 처우 등이 문제가 됐다. 광주시는 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 도입에 따른 처우 개선으로 생활체육 서비스의 질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2023년
3.22 ~ 4.19
묘이장 윤달
미리 준비하세요.
사전예약 필수!









- 윤달 이장 하실 분
- 별초, 묘지관리가 힘드신 분
- 선산을 한 곳으로 조성하고 싶으신 분
- 조상을 더 좋은 곳으로 모시고 싶으신 분
- 자연장을 선호하시는 분

광주 전남

수목장 / 매장 / 봉안 이장전문업체

묘이장/화장/평장/납골/자연장
정원장묘



상담문의

062-412-6183

장묘 관련 모든 상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